

“우리, 친구해요”



▲ My friend Lizza

김선미 개인전, 8일까지 광주 아트타운갤러리
광주·전남에 머무는 외국인 30여명 얼굴 담아

지난 2일 광주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 갤러리는 광주·전남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자신의 얼굴이 담긴 초상화를 보기 위해 동료와 함께 찾아온 이들이었다. 이들은 그린 풍경과 함께 담긴 자신들의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고향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날 전시장을 찾은 한국인들과 모처럼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국적을 떠나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광주·전남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오는 8일까지 ‘Community & Communication’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서양화가 김선미씨의 개인전에서는 미국, 영국을 비롯해 에티오피아, 필리핀 등 10여 개국 외국인들의 얼굴을 담은 작품 3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김씨는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해부터 외국인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주한 외국인들의 재능기부 봉사단체인 마루컬처센터에서 미술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떤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지 궁금했다.

지인의 소개를 받기도 했지만 직접 광주 예술의 거리나 시내를 돌아다니며

“로드 캐스팅’ 작품 그려
공동체 생각해되며
편견을 깨고 친구되기

만남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다.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들에게 무작정 자신의 취지를 설명하고, ‘로드 캐스팅’을 했다. 연락을 주고 받고 또 수차례 만남을 이어갔다. 함께 포충사 등으로 소풍을 가고,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작품을 그리기 전에 그 친구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였다.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외국인들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때문에 저희를 경계하는 외국인들도 있죠. 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뒤섞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기 위해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외국인들을 화폭으로 끌어들이는 김씨는 단순한 초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성격, 살아온 환경 등을 담으면서 친



▲ Benjamin ▼ Graham



구가 되려고 노력했다. 작품 제목도 ‘My friend...’로 시작한다.

무등산을 배경으로 담긴 흑인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출신의 다니엘이었다. 조선대 대학원에서 건축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다니엘은 좋아하는 풍경을 물었더니, “여름의 무등산”이라고 말했다. 녹음이 짙은 여름 무등산과 입석대, 서석대를 사이를 거니는 에티오피아 사자가 작품에 함께 담겼다.

남아공 출신 원머핀 강사 메린은 남아공에서 만날 수 있는 오랑우탄과 함께였고, 여수 한 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 마넬린은 집에서 키우던 자신의 말과 함께 화폭에서 어우러졌다. 햇빛에 따라 눈동자 색깔이 바뀌어서 “팬타이어 같다”라고 건넨 농담에 “나 1000살이야”라고 답했던 뉴질랜드 친구 그레이엄은 집에서 키우던 토끼가 화폭 한 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김씨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며 “국적 불문하고, 마음을 나누었을 때 사람과 친구가 되고,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전남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화산 그림그리는 집 미술학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문의 062-232-714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물빛으로 그린 스페인의 봄

수채화동호회 515갤러리서 8일까지 전시

물빛으로 그린 스페인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김효삼 작가 등 수채화 동호회 회원들이 오는 8일까지 515갤러리에서 ‘수채화로 만나는 스페인의 봄 여행’전을 연다.

김 작가와 함께 지난해 봄 스페인을 여행했던 김은미·김수정·이선하·김진아·마혜경·조영자씨가 수채 물감으로 담은 스페인 풍경 18점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스페인에서 가우디를 만났고, 헤밍웨이가 소설을 쓰기 위해 걸었던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특히 작가들은 룬다의 봄 풍경에 흠뻑 빠져들었다. 아르보 다리의 아치, 절벽 위에 서있는 흰색의 소박한 건물, 붉은색으로 수놓아진 지붕 등이 작품에 담겼다. 문의 062-654-300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김은미 작 ‘룬다의 5월’

재즈 공연 볼까, 국악 공연 볼까

7일 ‘재즈 피에스타’, 창극 프로젝트 ‘소리치다’ 공연

봄날, 흥겨운 재즈 공연과 국악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재즈 피에스타(대표 이민영)는 7일 오후 7시30분 광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소공연장에서 ‘동심을 노래하는 재즈’를 선보인다.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목요상설 공연 무대다.

이번 공연에서는 동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아리랑’ 등 동요·민요·영화·애니메이션 OST를 재즈로 편곡해 들려준다.

재즈피아니스트 이민영(광주대학교 외래교수)을 비롯해 기타리스트 이대인(동아인재대학교 외래교수), 더블베이스 김하성, 드럼 윤영훈, 재즈보컬 김은영 씨가 출연한다. 또 재즈메거진 ‘재즈 피플’의 2015라이징스타에 선정된 색소폰 송하철 씨가 객원으로 함께한다. 일반 1만원, 학생 5000원. 문의 062-670-7945.

창극 프로젝트 ‘소리치다’는 같은 날 오후 7시30분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진행



창극 프로젝트 ‘소리치다’

하는 목요 열린 국악 한마당 무대에 선다. ‘소리치다’는 전통예술인 판소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과 만나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창작하는 공연예술 단체다. 전통판소리의 맥을 잇되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기발한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다.

‘소리치다~ing’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과 목소리가 어우러진 가야금 병창으로 문을 열며 판소리 ‘수궁가’ 중에서 수궁에 들어간 토끼가 자신이 토끼가 아니라고 우기는 대목을 새롭게 편곡해 들려준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업체 제작 애니메이션 ‘갤럭시키즈’

2015 Asia-EU 카툰커넥션 어워드 수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 지역 업체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갤럭시키즈’가 최근 열린 ‘Asia-EU 카툰커넥션 2015’에서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갤럭시키즈’는 지난해 광주 CGI센터에 입주한 ㈜중앙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한 TV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정남주리기 스페이스 몽키가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우주구조대 갤럭시키즈의 이야기

를 다룬 코믹 어드벤처 스포츠맨 애니메이션이다.

‘Asia-EU 카툰커넥션’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EU집행위 산하기구 카툰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올해는 유럽 27개사, 중국 17개사 등 모두 131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광주 지역 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기업에게는 오는 9월 프랑스 툴루즈에서



개최되는 카툰 포럼에서 BBC 등 유럽 메이저 방송사,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발표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대전망과 서,남해안
미래가치 분석

서,남해안 부동산 투자

- 전남도청2차(오룡지구)
- 해남 산이면 위락도시(솔라시도)
- 해남 화원면 대우해양조선

투자가치 판단과 미래분석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세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재테크 상담소 상담전화 ☎(062)576-7955

※ 현지 실전전문가 무료상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역, 전 동산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